

한국 상사중재의 연구방법론 : 학문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The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Discipline-Fusion
Perspective

정용균(Yong-Kyun Chung)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국제무역학과 교수

목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학문융합적 중재 연구프로그램 | 참고문헌 |
| III. 한국중재의 학문융합적 연구방법론 | Abstract |
| IV. 함축성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본 뒤 최근의 학문적 추세를 고려하여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재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 중재연구방향에 있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의 교역규모와 교역상대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금결제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셋째, 분쟁당사국들도 유럽을 포함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재를 하나의 학문적 방법론에만 의지해서 연구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융합적 중재연구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융합적 방법론으로 법학적 방법론, 제도적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 인과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을 중재에 도입하여 중재를 학문 융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법학적 방법론이 중재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론이었지만 향후 중재는 그 외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주제어 : 중재, 학문융합, 문화, 인과적 연구방법

I. 서론

한국의 국제교역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교역대상국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5대양 6대주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과의 교역의 증대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분쟁의 규모와 건수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외국과의 교역은 국내교역과는 달리, 서로 법제도간의 차이가 있는 국가 간의 거래이다. 특히 법체계는 영미법 계통국가들과 대륙법계통국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법의 실행과 해석이 다르다. 더구나 이슬람문명권 국가들은 코란이 주요 법원이 되다보니 법의 실행이 서구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¹⁾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법 체계 역시 일반 서양이나 동양 국가들과는 다르다. 그러하다 보니,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국제무역의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주로 중재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중재에 대한 연구가 학문융합적 연구가 되어야 함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Hicks(1980)이 주장하듯이 진리 자체가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²⁾ Boulding(1970)은 오늘날 학문의 위기는 전문화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전문화로 인하여 학문은 서로 독립된 세부학문으로 나누어져서 학문 간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고 말았다.³⁾ 이러한 학문상황은 마치 인도의 우화에 나오는 소경들의 코끼리를 더듬는 것과 유사하다. 모든 소경들은 시각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볼 수 없다.⁴⁾ 다만 코끼리의 신체 일부분만 만져서 촉감을 통하여, 코끼리 형상을 부분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학자들의 진리 탐구 역시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 전체 이미지를 탐색하는 것과 유사하다. 만약 장님들이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인다면 코끼리의 전체적 모습에 가깝게, 코끼리 이미지를 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자들도 다른 분야 학자들과 협력한다면, 보다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Kuhn(1970)도 다른 학문분야에서 온 연구자가 기존 학문의 발전에

1)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들은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모든 생활규범의 근거로 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슬람사회에서는 무이자은행도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관련 법규범은 일반국가들과는 다르다.

2) Hicks교수는 진리탐구를 언급하면서 "Truth is many-sided"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ir John Hicks, *Causality in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3) Boulding, Kenneth, *Beyond Economics: Essays on Society, Religion and Ethic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0, p.85.

4)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고, 부분만 보지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인도철학이 함축되어 있는 우화이다.

기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⁵⁾ 이는 타 분야학자는 자기 분야의 학문과 새로운 분야의 학문을 융합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에드워드 윌슨(2009)에 의하면, 과거 계속 분리되고 분산되어 왔던 지식은 새롭게 통합되고 융합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두뇌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인지심리학의 학문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⁶⁾ Ariely(2011)를 비롯한 행동주의 경제학은 인지심리학을 활용하여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⁷⁾ ‘한국의 중재’라는 분석대상도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중재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방법론을 중재에 적용하는 학문의 융합적 접근방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중재에 대한 연구방법론은 주로 법학적 방법론과 제도적 방법론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외국과의 교역은 근본적으로 국내의 수출입상과 해외의 수출입상과의 상호작용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각자의 문화적 환경에 살아오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 역시 그러한 문화적 범주 내에 속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이 중재의 목적이라면,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접근방법이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영준(2000)에서 보듯이, 기존의 중재에 대한 연구방법론은 주로 법 논리를 근간으로 하여 중재합의의 타당성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쟁해결 방법 중에서 유독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하다면 중재선택과 분쟁선택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설명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중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에는 그동안 경제학이나 경영학, 무역학 등 상경계통 학문이 주로 사용하는 인과적 연구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한 연구는 자료수집을 통한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융합적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학문융합적 관점에서의 중재연구방법론을 모색한다. 셋째, 학문융합적 관점에서 중재방법론의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넷째, 학문융합적 연구방법 사례를 제시한다.

5)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6) 에드워드 윌슨(최재천·장대익역), 「지식의 대통합: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9.

7) 댄 에리얼리(김원호역), 「경제심리학」, 청림출판, 2011.

II. 학문융합적 중재 연구프로그램

1. 학문융합적 연구의 필요성

한국중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이 필요한 근거는 첫째, 실증적 방법론을 통하여 중재의 전체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6년에는 클레임이 총 749건이 접수되었으나, 2010년에는 1,117건이 접수되었다.⁸⁾ 즉, 클레임 접수건수가 5년 동안 49% 증가하여, 무역 분쟁이 매년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재(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 사건 수는 2006년에 215건에서 2010년에는 316건으로 증가하여, 5년 동안 47%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클레임 증가율과 중재처리 증가율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더구나 최근 5년간 중재처리비율 역시 대략 29% 정도 근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단순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무역 분쟁건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빈도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중재처리비율

연도	클레임 접수건수	중재처리건수	중재처리비율
2006	749	215	28.7%
2007	785	233	29.6%
2008	1,047	262	25.0%
2009	982	318	32.3%
2010	1,117	316	29.2%

주 : 중재처리비율은 중재처리건수(B)를 클레임 접수건수(A)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한국중재의 두 번째 고려사항은 무역관련 상사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단순히 상거래 관련 관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상거래 관련 관점에 추가적으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재사건들 중에서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8)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2006년 이전에는 클레임 접수건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건 원인별 클레임 현황을 살펴보자. <표2>에서 보듯이, 접수된 클레임 중에서 중재를 통하여 해결된 사건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금결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 316건의 중재사건 중에서 163건이 대금결제에 관한 분쟁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조건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총 90건이 보고되고 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품질불량에 관한 분쟁으로 총 29건이 보고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선적 및 납기 불이행에 관한 분쟁으로 총 19건이 보고되었다. 결국 클레임 건수 중 상당수가 대금결제 미수금문제이며 그 다음으로는 계약조건 해석에 관한 분쟁임을 알 수 있다. 중재사건의 3위는 품질불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계약조건 해석에 관한 분쟁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다.

<표2> 중재사건의 원인(2010년)

	사건 수	구성비
대금결제	163	51.6%
계약조건해석	90	28.4%
품질불량	29	9.2%
선적 및 납기불이행	19	6.0%
운송	9	2.88%
지적재산권	2	0.64%
수량부족	1	0.32%
기 타	3	0.96%
총 계	316	100.0%

주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참조.

따라서 윤충원·하현수(2007)이 보여주듯이 중재계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⁹⁾ 이처럼,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학적 관점과 아울러서 법학적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중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상거래를 다루는 국제상학과 계약의 유효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융합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중재의 세 번째 고려사항은 한국의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교역상대국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포괄해야한다는 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보고하고 있는 클레임다발국가 15개국

9) 윤충원·하현수,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2권 제3호 2007년 6월, pp.65-92.

의 중재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미국의 경우 총 10건을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¹⁰⁾ 2위는 중국과의 분쟁으로 총 8건을 기록하고 있다. 3위는 일본으로 총 5건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에는 중국이 총 14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12건을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사항은 클레임 다발 15개 국가들 중에서 유럽지역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 독일, 러시아, 아일랜드 등 유럽지역 국가들과도 지속적으로 무역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표3〉 중재처리건수와 중재처리금액

	2010년		200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10	3,577,886	12	9,744,373
중국	8	2,032,037	14	30,122,136
일본	5	1,237,235	2	48,148
태국	3	403,440	1	150,000
홍콩	3	819,615	1	8,290
러시아	3	483,312	3	335,396
독일	2	333,061	5	2,210,106
아일랜드	2	315,240	1	150,000
파나마	2	35,786,654	1	54,308
대한민국	1	236,300	1	982,722
인도	1	11,249	4	2,491,738
인도네시아	1	103,271	0	0
몽골	1	150,000	1	5,715,560
필리핀	1	0	1	55,180
싱가포르	1	8,688	1	2,261,334

주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와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큰 유럽국가와의 분쟁을 피할 수가 없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원도 중재에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니스

10)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식적으로 클레임다발국가 15개국의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벳(2004)에 의하면, 서양과 동양은 사고방식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니스벳에 의하면, 서양문명이 규칙을 중요시하는 반면 동양문명은 관계를 중요시한다. 또한 서양문화가 논리를 중요시하는 반면, 동양문명은 경험을 중요시한다.¹¹⁾ 서양문명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동양문명은 전체를 바라본다.¹²⁾ 따라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학과 문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2. 한국중재의 과학연구프로그램

한국의 중재에 대한 연구가 학문융합적 연구가 되어야 함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Hicks(1980)이 주장하듯이 진리자체가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¹³⁾ 인도의 우화에 보면, 인간의 진리탐구는 소경들이 코끼리를 알아보려는 것과 유사하다. 인도 우화는 매우 유명한 우화로서, 어떤 마을에 코끼리가 들어왔다. 마을의 소경들이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도 없고, 코끼리의 형상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코끼리를 보려고 왔다. 그들은 시각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단지 코끼리를 만져볼 뿐이다. 어느 한 소경이 코끼리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소경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딱딱한 막대기 같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세 명의 소경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모두 타당한 관찰을 통하여 도출한 타당한 주장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다. 사회과학에서의 진리탐구도 이와 같이 전문분야에 따라서 사회의 한 부분만 관찰할 뿐이다. 결국 학자들의 진리 탐구 역시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 전체 이미지를 탐색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의 학문구조는 학문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각자의 영역에 갇혀 있는 단점이 있다. 소경들이 협력한다면, 코끼리의 전체적 이미지에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세부 학문 간의 융합적 연구도 보다 바람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문융합이 학문연구에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학문분야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찰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전체적 진리에 다가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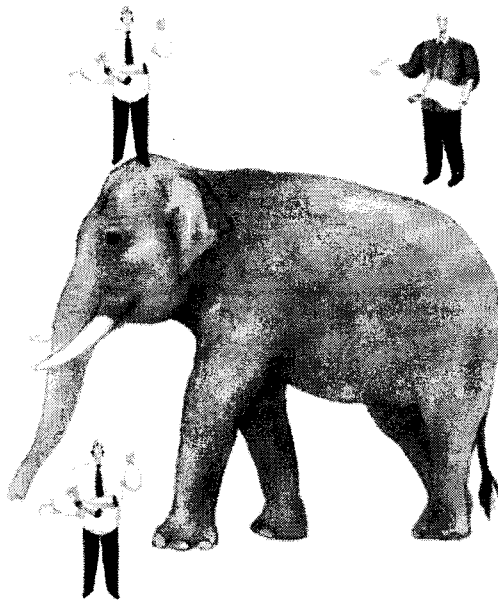
11) 리처드 니스벳(최인철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12) 리처드 니스벳(최인철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불교의 초기경전인 스탁니파타에 의하면, 부처는 눈뜬 이로 묘사되고 있다. 앞서서 기술한 인도의 소경우화에서 보듯이, 일반 대중은 진리탐구에 있어서, 소경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소경인 관계로 부분만 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자는 눈을 뜬 사람이다. 눈을 뜬 이라는 개념은 소경과 대조된다. 눈을 떴다는 것은 진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법정 역, 『스탁니파타』, 도서출판 이레 1999, p.11 참조.

13) Hicks교수는 진리탐구를 언급하면서 “Truth is many-sided”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ir John Hicks, *Causality in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재제도는 그 자체가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이 필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상사중재제도 자체가 여러 인접 학문분야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재연구에는 법학적 방법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당수 국가들이 중재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심지어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중재법이 민법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학적 방법론이 필수적이다.¹⁴⁾ 둘째, 제도적 방법론이 중재연구에 중요하다. 중재는 임의중재와 기관중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재 협회나 중재기관을 통해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재기관의 작동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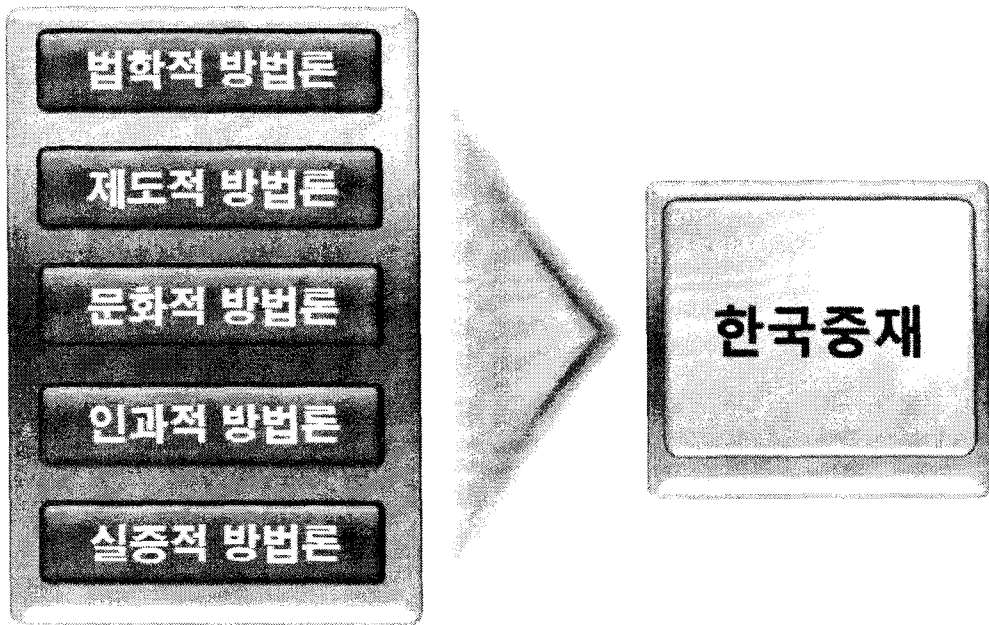


〈그림1〉 코끼리와 소경 우화

셋째, 중재연구에는 문화적 방법론이 필수적이다. 소송제도에 있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분쟁당사자와 의사소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기준이기 보다는, 발생한 손해를 양 당사자가 적합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측면도 아울러 존재한다. 따라서 소송제도 보다는 분쟁당사자와 중재인간의 의사소통이

14) 한국중재학회의 경우, 중재학회 회원은 상경계통 각 대학의 무역학과 교수들과 법과대학 로스쿨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회장을 선출할 때도, 무역학과 교수와 법과대학 교수들이 2년 임기로 순차적으로 맡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 서로 문화가 다른 분쟁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은 문화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중요하다. 한편 중재인 자체도 다양한 국적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높다.¹⁵⁾ 중재판정부 자체가 다국적으로 구성되고, 중재변호사 역시 다국적으로 구성된다면, 국적과 문화가 서로 다른 중재인 및 변호사간의 의사소통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재언어 선택에 따라서 더욱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며 설령 중재언어가 영어와 같은 공용어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화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를 단순히 법학적 차원이나 제도적 차원만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2〉 학문융합적 중재 연구프로그램

넷째, 중재연구에 인과적 연구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법제도적 연구만으로는 실제 중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사용해온 인과적 방법론을 중재에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학문융합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중재에 어떠한 요인

15) 중재판정부는 일인 판정부나 3인 판정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3인이면 의장중재인은 제3국이 되면, 두 중재인은 서로 다른 국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 만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 중요한지 분석하는 데는 인과적 연구방법론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실증적 방법론이 매우 효과적 수단이 된다. 실증적 연구방법론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가장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인과적 연구방법론과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중재연구에 도입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중재는 법학적 관점, 제도적 관점, 문화적 관점, 인과적 관점, 실증적 관점이 융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해야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인다.

Ⅲ. 한국중재의 학문융합적 연구방법론

1. 법학적 방법론

법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중재를 분석한다는 것은 국제상학과 법학을 융합하여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중재대상은 무역클레임이다. 무역클레임이란 국제상학의 연구대상이다.¹⁶⁾ 그러나 법학적 관점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명확한 분쟁해결에 도달한다. 이처럼 법학적 방법론이 중시되는 이유는 첫째, 중재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간 해결이 우선시되기는 하지만, 중재판정 역시 중재판정부를 통하여 해결되며 근본적으로 각국이 별도의 중재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중재법을 제정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도 1999년 중재법을 개정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1996년 개정된 중재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별도의 중재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중재법을 제정하여 중재를 규율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중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서는 법학적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둘째,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인들은 국내외를 비롯하여 변호사나 과거 법관 출신인 경우가 많다. 장승화(2010)에 의하면, 실무적 관점에서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중재인과 변호사가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¹⁷⁾ 정병석(2010)에 의하면,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LMAA)가 국제해사중재사건을 전적으로 담당해오고 있다.¹⁸⁾ 그런데 LMAA의 중재인들은 주로 영국법원의 판사출신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도 중재는 변호사들이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계의 경우도 주로 법과대학 교수들이

16) 대부분의 무역상문 교과서 후반부에는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에 관한 장이 있다.

17) 장승화, "국제중재: 중재인의 시각," 「제6기 중재CEO아카데미 자료-5」,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5월.

18) 정병석, "해사중재의 현황과 전망," 「제6기 중재CEO아카데미 자료-5」,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4월.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재인의 전문분야가 법학분야이고 이들이 법이론가들이다 보니 당연히 중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적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 셋째, 중재과정을 살펴보면, 설령 중재 자체는 중재판정부가 내린다고 하지만,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관할이다. 특히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이 규율하고 있다.¹⁹⁾ 넷째, 중재계약 자체가 준거법을 거론할 수 밖에 없다. 준거법을 거론하게 되면, 실제 중재판정 집행은 법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 석광현(2010)에 의하면 이들은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 중재판정의 취소 등 법학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²⁰⁾ 현재 법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중재연구로는 하충룡·박원형(2006), 윤충원·하현수(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앞으로도 법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중재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 제도적 방법론

중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재를 수행하는 중재기관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산재해있는 국제중재기관들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목영준(2000)에 의하면, 서양에서는 영국의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미국의 AAA, 스웨덴의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등이 지명도가 있다. ²¹⁾ 그러나 ICC 중재법원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Whitesell(2010)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법원이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²²⁾ Whitesell(2010)에 의하면, ICC 중재법원은 2009년 800건 이상의 국제중재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128개국과 관련된 사건이었다.²³⁾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의 국제중재센터와 싱가포르의 국제중재센터가 유명하다. 한국과 교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섭외중재는 CIETAC과 다양한 지방중재위원회 관할이다. 정용균·이승석(2010)에 의하면, 특히 그 중에서도 북경중재위원회(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 BAC)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²⁴⁾ 해상중재의 경우 일반 상사중재와는 별도의

19)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20)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의 특색: 국내상사중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6기 중재CEO아카데미 자료-5」,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4월.

21)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년.

22) Anne Marie Whitesell, “Trend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4회 중재실무연수과정 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3월, pp.88-98.

23) Anne Marie Whitesell, “Trend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4회 중재실무연수과정 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3월, p.90 참조.

24) 정용균·이승석, “중재기관 평가모형을 통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특성연구,” 「중재연구」, 제20권 2호, 2010년 8월,

중재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CMAC가 CIETAC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해상사건의 중재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도 기존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와 별도로 싱가포르해사중재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중재기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중재기구나 중재제도들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이다. 제도적 방법론은 한국의 중재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KACB)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제도적 방법론의 예로는 신군재(2004), 차경자(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신군재(2004)는 중국의 중재제도를 연구하였으며,²⁵⁾ 차경자(2005)는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재제도를 연구한 바 있다.²⁶⁾ 홍성규(2008)는 중국의 섭외중재제도를 연구하였다.²⁷⁾ 이처럼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고 있으나 그 밖의 국가들의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한국의 교역상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 중국 뿐 만 아니라 중남미대륙, 아프리카대륙 국가 등, 중재제도가 우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국가들의 중재제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면에서 제도적 연구방법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적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은 중재를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라는 국제상학분야와 인문학간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막스 베버(1949)는 일찍이 자연과학과 대비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을 총칭하여 문화과학(cultural science)이라고 분류한 바 있다.²⁸⁾ 최근에는 Hofstede(1995)는 경영학과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Jandt(1995)에 의하면 문화는 세대에 걸쳐서 내려온 전통, 관습, 도덕, 신념, 가치들로 정의된다.²⁹⁾ 우리가 수출하는 각 지역 각 국가들은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분쟁해결 상대방이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분쟁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이후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역대상국도 날로 증가하여 현재는 200여국에 이르고 있다. 교역대상국들

pp.199-225.

25) 신군재,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9권 제4호 2004년 8월, pp.211-230.

26)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년 8월, pp.103-127.

27) 홍성규, "중국의 상사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2008년 9월, pp.131-153.

28) Max Weber, "Critical Studies in the Logic of the Cultural Sciences," Max Weber,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Free Press, 1949, pp.113-188.

29) Jandt, Fre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s, 1995, p.7.

의 문화를 대별해 보면 서양의 문화, 동양의 문화, 이슬람 중동지역 문화, 아프리카 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영향력이 크다.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국의 문화적 전통은 심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외국과의 국제무역은 결국 서로 다른 문화와의 조우이다. 분쟁해결방법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마주치는 국가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표4〉 지역별 협상 특성

	의사소통	갈등처리	개방성	협상시간	협상파트너
북미지역	직접화법	경쟁에서 승리	개방적	짧음	실무담당자
중남미지역	간접화법	관계 유지	폐쇄적	구애받지 않음	고위간부
라틴유럽지역	간접화법	관계 유지	폐쇄적	상대적으로 길다	고위간부
게르만유럽	직접화법	경쟁에서 승리	개방적	짧음	실무담당자
동북아시아	간접화법	경쟁, 체면유지	폐쇄적	길다	고위간부
영연방계아시아	간접화법	관계, 체면유지	폐쇄적	길다	집단수장

주 : 정용균, “수출마케팅 협상과 국가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Hofstede와 Hall의 이문화경영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제11권 제1호, 2007년 봄호, 표4를 수정한 것임. p.278 참조.

경제지리학은 세계 각 지역을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해오고 있다.³⁰⁾ 어떤 국가가 지리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면 그 국가의 성과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다. Landes(2010)는 유럽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중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것도 문화적 차이로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등 위대한 발명들을 하고 산업자체도 유럽보다 앞서 있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을 달성해내지 못하였고 19세기 들어서 서구 열강의 침탈을 받았다. 이처럼 중국이 기술면에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에 실패한 것은 문화 및 가치관에 기인한다는 설명이 있다. Landes(2010)는 가치관의 차이의 예로 일본과 중국에서의 여성 역할의 차이를 예로 들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 자

30) Landes, David(안진환 최소영역), 「국가의 부와 빈곤」, 한국경제신문사, 2010. pp.27-32 참조.

31) 중국은 섬유분야의 경우 이미 12세기에 대마를 짓는 수력기계를 보유했다. 이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수력방직기와 정방기를 접한 것 보다 5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철강제조의 경우, 중국은 일찍부터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 석탄과 코크스 사용방법을 알았고, 11세기 후반에 선철을 12만5천톤이나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경우 700년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Landes, David(안진환 최소영역), 「국가의 부와 빈곤」, 한국경제신문사, 2010. pp.105-109 참조.

유럽계 출입하고 집밖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된 반면, 중국의 경우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³²⁾ 이 결과 일본이나 유럽은 일찍부터 여성의 경제 참여가 이루어졌다.

정용균(2007)에 의하면, 세계 각국은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대륙에 속하며 각 대륙은 문화적 차원에서 세분화가 가능하다. 유럽대륙은 라틴 유럽지역과 게르만 유럽지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라틴유럽지역은 로마제국의 발원지이거나 로마제국의 영토였던 국가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은 게르만족의 침입이 있었던 지역이다. 라틴유럽지역과 게르만 유럽지역 국가들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³³⁾

오늘날 미주대륙은 게르만계 국가인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미지역과 라틴 유럽국가였던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지역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Hofstede(1980, 1995)에 의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등 라틴어권 국가들은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가진 로마제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게르만어권 국가들의 원형인 게르만족들은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 거주하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는 다종족 구조의 사회를 가지고 있었다.³⁴⁾

북미지역과 중남미지역 간에는 문화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미지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직접화법을 구사하며, 신체접촉을 꺼리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간접화법을 구사하며 적극적으로 신체접촉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³⁵⁾ 마틴 개논(2002)에 의하면, 브라질의 경우, 협상자간 신체밀착도가 큰 국가이다.³⁶⁾ 아시아대륙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지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계 아시아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³⁷⁾ 아시아 지역을 두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은 동북아시아지역은 19세기말 이후 서양문명의 영향력을 덜 받은 지역인 반면 영연방계 지역은 서양문명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은 지역이기 때문이다.³⁸⁾ 정용균(2007)의 <표4>에서 보듯이, 아시아대륙, 유럽대륙, 북미대륙을 6개 세분 지역은 의사소

32) Landes, David(안진환 최소영역), 「국가의 부와 빈곤」, 한국경제신문사, 2010, p.108 참조.

33) 법적으로도 라틴유럽지역은 로마법이 영향을 크게 주었으며 게르만 유럽지역은 게르만법이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는 법률체계가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로 나누어 진 기원이기도 하다.

34) Hofstede G.(차재호 나운영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참조.

35) 정용균, “수출마케팅 협상과 국가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Hofstede와 Hall의 이문화경영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제11권 제1호, 2007년 봄호, pp.278-279 참조.

36) 마틴 개논(최윤희 외8인 역), 「세계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년, p.233 참조.

37) 정용균, “수출마케팅 협상과 국가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Hofstede와 Hall의 이문화경영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제11권 제1호, 2007년 봄호, pp.273 참조.

38) 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 영연방계 국가들은 주지하다시피 2차세계대전 이전에 모두 영국의 식민지였다. 따라서 공용어가 영어이며 영국의 제도와 문화가 깊이 침투한 지역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서양의 영향력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여서 서양문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지역이며 중국 역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매우 강하여 서양문명의 영향력이 약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통, 갈등처리, 개방성, 협상시간, 협상파트너, 관계지속성의 기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³⁹⁾

문화적으로 동일한 국가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한다면, 중재에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재에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틴 개논(2002)와 이창훈·서민교(2007)가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은 대외협상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판시란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견지하고 있다.⁴⁰⁾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이 경쟁적 특징을 가지는 북미지역이나 게르만유럽지역 비즈니스맨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서로 중재를 통한 타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클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재에 대한 연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융합하여 연구하는 것도 현재의 법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최근 이러한 학문융합적 접근방법이 시도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Sheehy(2006)는 법학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여, '법의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서양과 중국을 비교한 바 있다.⁴¹⁾

4. 인과적 방법론

학문융합적 방법론의 한 가지는 인과적 연구방법론을 들 수 있다. 인과적 연구방법이란 연구모형을 세워서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성을 살펴보는 연구방법론으로 주로 경제학에이나 경영학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거시경제학의 소비함수논쟁은 인과성(causality)에 관한 논쟁이다. Keynes는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현재소득임을 밝혔다. 그 이후 Friedman교수는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결국 소비와 소득 간 인과관계에 대한 상호 경쟁적인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인과성의 진정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⁴²⁾ 미시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인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도 수요량을 결정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수요함수를 세워서 수요량과 가격, 외부환경요인등과의 인과성을 분석한다. 어떤 재화의 수요량은 결과이며, 그 재화의 가격과 타재화의 가격, 외부환경요인은 원인이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인

39) 정용근, "수출마케팅 협상과 국가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Hofstede와 Hall의 이문화경영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제11권 제1호, 2007년 봄호, pp.278 참조.

40) 마틴 개논(최윤희 외8인 역), 「세계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년, pp.632-633 참조. 이창훈·서민교, "중국비즈니스에서 관시의 역할과 시사점,"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2007년 3월, pp.235-255.

41) Sheehy, Benedict, "Fundamental Conflicting Views of the Rule of the Law in China and the West and Implications for Commercial Disputes",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Vol 26, Winter 2006, pp.225-266.

42) Keynes, John Maynard,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Co Ltd, 1960. 그러나 Friedman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현재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임을 밝히고 있다.

지 주로 함수관계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Arrow(1974)는 수요의 법칙을 확장하여 무형의 재화인 정보에 대한 수요함수를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인과적 방법론을 중재에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학문융합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재를 선택하게 된 현상을 하나의 결과로 보고, 결과와 분리하여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이다. 왜 소송을 선택하지 않고 중재를 선택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재를 선택하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CC 중재법원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Whitesell(2010)에 의하면, 중재의 장점은 중립성(neutrality), 의사결정자의 선택(choice of decision makers), 절차적 융통성(flexibility of procedure), 기밀성(confidentiality), 신속성(time-saving), 비용절감(cost-saving), 중재판정의 최종성(finality), 중재판정의 국제적 신인도(international recognition of arbitral awards) 등을 고려하고 있다.⁴⁴⁾ 정용균·이승석(2010)은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를 분석하면서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 평가모형을 수립하였다. 정용균·이승석(2010)은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접성, 독립성, 중립성,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집행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⁴⁵⁾ 정용균(2011)은 이러한 Whitesell(2010)과 정용균·이승석(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DR) 연구모형을 수립한 바 있다.⁴⁶⁾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재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들이 중요하다고 분석된다.

첫째 기준은 신속성이다. 신속성은 Whitesell(2010)이 시간 절약성(time-saving)이라고 표현하면서 중재의 장점으로 제시한 특성이다. 목영준(2000),⁴⁷⁾ 정용균·이승석(2010) 및 정용균(2011)도 신속성을 중재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심제도인 소송은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⁴⁸⁾ 이에 비하여 중재는 모든 국가에 걸쳐서, 단심제이다. 즉 단 한 번의 결정을 통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에 의한 소송제도 보다 매우 신속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기준은 경제성이다. 경제성이란 중재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Whitesell(2010)은 중재의 장점으로 비용절감(cost-saving)을 거론하였으며 정용균·이승석(2010) 및 정용균(2011)은 이를 경제성으로 표현하였다. 이시윤(2002)에 의하면,

43) Arrow, Kenneth, "The Value of and Demand for Information," *Essays in The Theory of Risk Bearing*, North-Holland Co, 1974, pp.267-278.

44) Anne Marie Whitesell, "Trend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4회 중재실무연구과정 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3월, p.92 참조.

45) 정용균·이승석, "중재기관 평가모형을 통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특성연구," 「중재연구」, 제20권 2호, 2010년 8월, pp.199-225.

46) 정용균,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에 관한 연구모형," manuscript,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전자무역연구센터, 2011.1.6.

47)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48)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3심제도는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구성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p.109.

소송은 ‘돈이 많이 드는’ 분쟁해결방식이다.⁴⁹⁾ 만약 중재가 소송보다 단시간에 해결된다고 하면, 그만큼 분쟁해결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중재가 소송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셋째 기준은 절차의 융통성(flexibility of procedure)이다. 중재절차의 융통성은 Whitesell(2010)이 중재의 장점으로 제시한 특성이다.⁵¹⁾ 소송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이 표준화되어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⁵²⁾ 그러나 중재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를 선택할 경우, 절차적 편의성으로 인하여, 시간이 적게 들고, 분쟁을 해결하기 용이하다. 넷째 기준은 기밀성(confidentiality)이다. 기밀성은 목영준(2000)과 Whitesell(2010), 정용균(2011)이 모두 중재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로 거론한 특성이다. 이시윤(2002)에 의하면, 소송은 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⁵³⁾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도 된다. 특히 중요한 회사비밀이 관여된 분쟁이나 외부에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⁵⁴⁾ 이러한 경우 기밀성은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제도에 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된다.

다섯째 기준은 우의성으로서, 목영준(2000)은 이를 중재의 장점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시윤(2002)에서 보듯이, 법정 투쟁인 소송은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⁵⁵⁾ 그러나 중재는 중재절차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와 원고간의 대립성이 약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약관계 지속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유교문화권에서는 대립보다는 조화를 강조한다. Wall and Blum(1991)에 의하면, 유교문화는 남과의 경쟁보다는 타협이나 조화를 중시하고 있

49) 이시윤은 2002년 구민사소송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것도 소송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만큼 소송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돈이 많이 드는 문제이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머리말 참조.

50) 이시윤은 2002년 구민사소송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것도 소송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만큼 소송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소송지연 문제이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머리말 참조.

51) Anne Marie Whitesell, "Trend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4회 중재실무연수과정 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3월, p.92 참조.

52) 소송은 실체법과 별도로 절차법이 구비되어 있어서 절차상의 표준화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53) 민사소송법에서는 국민이 재판을 감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p.262.

54) 연예인과 관련된 분쟁사건의 경우, 대부분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왜냐하면 연예인의 경우 신상정보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분쟁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가 소송보다 매력적이다.

55)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당사자대립주의(Zweiparteienprinzip)이라고 하여, 소송은 근본적으로 법정투쟁이며 양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p.110.

다.⁵⁶⁾ 여섯째 기준은 중재인의 전문성이다. Whitesell(2010)은 중재의 장점 중의 하나로 중재판정의 국제적 신인도(international recognition of arbitral awards)를 거론하고 있는데 중재판정의 국제적 신인도는 중재인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⁷⁾ 일곱째 기준은 중재인의 중립성이다. Yuen(2007), 김경배(2008)와 Whitesell(2010)에 의하면, 중립성(neutrality)은 중재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이다. Yuen(2007)은 중재판정부의 중립성이 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김경배(2008)에 의하면, 중재인은 고지의무가 있고 중재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재인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면 중재판정 취소사유 및 집행거부 사유가 된다.⁵⁸⁾ 여덟째 기준은 중재판정의 집행성이다. 뉴욕협약에 의하여 섭외중재판정의 집행성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차경자(2005)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요청받은 해당국 법원이 공서사유를 이유로 들어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위에서 Whitesell(2010)이 거론한 중재의 장점 각각을 반영하여 인과적 연구모형의 수립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인과적 연구모형 수립을 통한 중재연구는 법리를 통한 중재연구와 더불어 의미있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실증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이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Friedman(1953)이 제시한 방법론으로, 연구가설이 타당한지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현대 계량경제학을 개척한 Schumpeter(1933)는 경제학을 통계적 측정 없이 가능한 분야와 그 자체가 통계적 측정을 동반하는 분야로 분류하면서, 그 자체가 통계적 측정을 동반한 분야라면 통계적 방법론을 동원해야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바 있다.⁶⁰⁾ 이러한 Schumpeter(1933)의 논리를 중재분야에 적용하

56) 유교문화의 창시자인 공자는 만약 타인이 내게 해를 입히면 조화로운 상태를 상실하기 보다는 고통을 인내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Wall, James and Blum, Michael, "Community Medi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5, 1991, p4 참조.

57) Anne Marie Whitesell, "Trend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4회 중재실무연수과정 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3월, p.92 참조.

58) 우리나라 대법원은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중재법 제13조 1항의 법적 성격을 강행규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4.29 선고 2004다47901판결, 김경배, 전제논문 p.35 참조.

59)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년 8월, pp.103-127.

60) 슈페터는 경제학 개념 중에서 근본적으로 수치로 표현해야 의미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영역이 아닌 것으로는 기업조직의 역사, 사유재산제도에 관한 철학, 경제생활의 문화적 측면 등에 대한 연구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보았다. Schumpeter, Joseph, "The Commonsense of Econometrics," *Econometrica*, January 1933, pp.5-12.

여서, 중재 영역 중에서,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증적,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한다면 지금까지 중재의 장점으로 거론된 신속성이나 경제성 등이 과연 타당한 가설인지 검증할 방법이 생긴다. 예를 들어, 장승화(2010)에 의하면, 실무적 차원에서 중재 역시 중재인에 대한 보수 뿐 만 아니라, 분쟁당사자를 대리하는 국제중재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⁶¹⁾ 특히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저명한 중재인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⁶²⁾ 이는 경제성이 과연 타당한 중재의 장점인지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중재가 신속하다는 선입견에 대하여 Fei(2008)에 의하면, 홍콩 Weimao International Co Ltd와 중국의 Shanxi Tianli Industry Co Ltd 간 사건의 경우, 중국 고급인민법원이 2001년 4월 최고인민법원에 사건을 보고하였는데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4년 뒤에 하였다.⁶³⁾ 이는 중재가 신속하다는 일반적 견해와 배치된다.

Hempel(1968)은 학문적 설명(explanation)을 ‘과학적 설명’과 ‘자명한 것을 통한 설명’으로 구분한 바 있다. 자명한 것을 통한 설명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미 우리가 친숙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 어떤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 사람에게 자명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자명한 것을 통한 설명은 상대적 특징을 갖는다.⁶⁴⁾ 그러나 경험과학이 추구하는 바는 객관적 관계이다. 자명한 것을 통한 설명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문자 그대로 자명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대부분 이론(theory)을 사용하여 자명한 사실(fact)을 설명하는 것이다.⁶⁵⁾ Hempel(1968)의 논리를 상사중재

- 61)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자국의 변호사 뿐 만 아니라 분쟁 상대방 국가의 변호사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는데 중요하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중재인의 보수 뿐 만 아니라, 분쟁당사자를 대리하는 자국내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비용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장승화, “국제중재; 중재인의 시각,” 「제6기 중재CEO아카데미자료-7」, 2010년 5월 6일.
- 62)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상사중재규칙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도, 중재인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지역 출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 Reinstein, Ellen, “Finding a Happy Ending for Foreign Investors: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di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005, Vol 16, pp.37-72.
- 63) Fei, Langfang,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A Case Study,”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 4, No. 2, 2008, pp.123-136.
- 64) Carl, Hempel, “Explanatory Incompleteness,” May, Brodbeck(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Macmillan Company, 1968. p.413. 정용균, “국제상학과 전자무역의 학문적 연계성 및 동태적 진화에 관한 연구: Lakatos의 과학연구프로그램과 Kuhn의 이론선택모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4권, 제3호, 2009년 6월, pp.221-251. 참조.
- 65) Carl, Hempel, “Explanatory Incompleteness,” May, Brodbeck(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Macmillan Company, 1968. p.413. 정용균, “국제상학과 전자무역의 학문적 연계성 및 동태적 진화에 관한 연구: Lakatos의 과학연구프로그램과 Kuhn의 이론선택모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4권, 제3호, 2009년 6월, pp.221-251. 참조.

에 적용한다면 과연 중재에서 자명한 사실로 거론되고 있는 주장들이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해 보아야할 것이다. 현재 무역학이 다른 인접학문인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비하여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실증적 연구의 부족함이라는 견해도 있다.⁶⁶⁾

현재 중재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소수의 몇몇 연구가 있을 뿐이다. 최정호·이제현(2004)은 무역클레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⁶⁷⁾ 박봉규·신군재(2005)가 부산지역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재제도의 유용성과 기업의 인식도간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 것이 있다.⁶⁸⁾ 외국의 실증분석 예로 Peerenboom(2001)은 중국의 중재판정 집행 실태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행한 바 있다.⁶⁹⁾ 실증적 방법론의 적용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IV. 함축성

중재제도는 그 자체가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이 필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상사중재제도 자체가 국제무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보니 국제상학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중재는 중재법에 따라서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는 속성으로 인해서 법학과 분리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다른 문화권 간의 국제분쟁이므로 문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한편 중재 이론과 현실 간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과적 연구방법론이나 실증적 방법론이 효과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중재는 법학적 관점, 제도적 관점, 문화적 관점, 인과적 관점, 실증적 관점이 융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해야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인다.

Lakatos(1978)에 의하면 과학이론은 하나의 특성만을 지니는 단순구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핵심부분과 보호대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과학연구프로그램이라고 보았다.⁷⁰⁾ 한 시대를 풍미한 이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전체적 형상이 변한다고 보

66) 최근 이천년대 들어 전자무역이 대두되어 왔는데, 이들은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간극을 메꾸고 있다.

67) 최정호·이제현, "한국수출기업의 무역클레임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논총』 제15-1집,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2004, pp.203-231.

68) 박봉규·신군재, "중재제도의 유용성과 부산지역 기업들의 인식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3호, 2005년 12월, pp.27-54.

69) Peerenboom, Randall, "Seek Truth from Facts: An Empirical Study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the PRC",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49, 2001, pp.249-327.

70) 핵심부분(core)은 이론의 중심부분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보호대(protective belt)는 환경에 맞추어서 변화하면서 핵심부분을 보호한다.

있다.⁷¹⁾ 특히 경제학의 경우 Lakatos(1978)의 방법론은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전파경제학은 통화주의(Monetarism)와 합리적 기대론(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으로 변천하고 있는 과학연구프로그램이다. 고전파 과학연구프로그램은 초기의 고전파에서 통화주의학과와 합리적기대론으로 변천하면서 핵심내용은 변화하지 않고 다만 분석방법론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Lakatos(1978) 과학철학방법론을 중재에 적용하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중재는 시대에 따라서 연구방법론에 변천이 있을 수 있다. 즉 ‘분쟁해결’이라는 핵심부분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서 법학적 방법론이 우세한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문화적, 인과적 방법론이 우세할 때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도메인분쟁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도메인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수단으로 온라인 분쟁해결방식인 ODR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ODR이 활성화되면 Rao(2004)의 주장과 같이 분쟁해결에서 문화가 중요해진다.⁷²⁾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학문 조류의 대세에 따라서 중재분야는 인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서 생존해나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학문융합적 관점에서 상사중재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학적 방법론, 제도적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 인과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을 학문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학문융합적 방법론은 현대 학문의 새로운 추세이다. 에드워드 윌슨(2009)에 의하면, 과거 계속 분리되고 분산되어 왔던 지식은 새롭게 통합되고 융합되고 있다.⁷³⁾ 에드워드 윌슨(2009)에 의하면, 과거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모든 관련 요소들을 검토하고 특정의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았지만, 인간은 만족화(satisficing)를 하는 존재이다. 만족화란 단기간에 가용적이고 감지되는 것들로부터 첫 번째로 만족스러운 것을 고른다는 의미이다.⁷⁴⁾ 만약 만족화가 실제 인간의 선택기준에 더 근접한 기준이라면, 합리적 선택이론은 실제 인간행동과 맞지 않다. 에드워드 윌슨(2009)에 의하면, 합리적 선택이론의 대

71) Lakatos, Imre,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John Worrall and Gregory Currie(e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8-94.

72) Rao, Sharanya, "The Cultural Vacuum in Online Dispute Resolution," <http://www.odr.info/unforum2004>.

73) 에드워드 윌슨(최재천·장대익역), 「지식의 대통합: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9.

74) 에드워드 윌슨(최재천·장대익역), 「지식의 대통합: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9, p.356.

안으로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Tversky and Kahneman(1974)의 heuristic이 제시되고 있다.⁷⁵⁾ 문제는 이처럼 경제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Tversky와 Kahneman이 심리학자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심리학연구는 경제학과 융합하여 경제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Camerer et al(2005)의 예에서 보듯이 뇌과학은 경제학과 융합하여 신경경제학 분야가 만들어졌다. 또한 호아젤(2008)이 제시하듯이 뇌과학과 마케팅이론이 융합된 뉴로마케팅분야가 개척되고 있다.⁷⁶⁾ 신경경제학과 뉴로마케팅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문분야 곳곳에서 그동안 전문화로 인해 단절되었던 학문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한국중재분야도 다양한 학문분야와 중재분야의 학문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중재분야는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만 연구되다보니, 법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만이 연구되는 협소함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재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Privatautonomie) 철학에서 기원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제도이다.⁷⁷⁾ 따라서 분쟁당사자간의 융통적인 분쟁해결측면이 부가되어 있다. 그러한 만큼 법학적 논리에 여타 학문분야의 방법론까지 융합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중재의 영역을 넓히는 길이라고 해석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1호, 2008년 3월, pp.31-47.
- 덴 애리얼리(김원호역), 「경제심리학」, 청림출판, 2011.
- 리처드 니스벳(최인철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 마틴 개논(최윤희 외8인 역), 「세계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년.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 박봉규·신군재, “중재제도의 유용성과 부산지역 기업들의 인식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3호, 2005년 12월, pp.27-54.

75) Tversky, Amos and Daniel Kahneman,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Vol 185, 1974, pp.1124-1131.

76) 세계적 자동차 회사들은 오늘날 뉴로마케팅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견을 자동차 디자인에 응용하고 있다. 뉴로마케팅 전문가들은 fMRI를 활용하여 뇌를 촬영함으로써, 인간의 의사표시와 뇌의 진정한 의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7)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법연구」, 한국경쟁법학회, 제18권, 2008, p.208 참조.

- 법정(역), 「숫타니파타」, 도서출판 이레, 1999.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의 특색: 국내 상사중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6기 중재 CEO아카데미 자료-5」,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4월.
- 신군재,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9권 제4호 2004년 8월, pp.211-230.
- 윤충원·하현수,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2권 제3호 2007년 6월, pp.65-92.
- 에드워드 윌슨(최재찬·장대익역), 「지식의 대통합: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9.
- 이강빈, “상사중재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역할,”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9권 제2호, 2009년 8월, pp.3-26.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장승화, “국제중재: 중재인의 시각,” 「제6기 중재CEO아카데미 자료-7」,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5월.
- 정병석, “해사중재의 현황과 전망,” 「제6기 중재CEO아카데미 자료-7」,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5월.
- 정용균, “수출마케팅 협상과 국가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Hofstede와 Hall의 이문화경영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제11권 제1호, 2007년 봄호, pp.253-290.
- 정용균, “국제상학과 전자무역의 학문적 연계성 및 동태적 진화에 관한 연구: Lakatos의 과학연구프로그램과 Kuhn의 이론선택모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4권, 제3호, 2009년 6월, pp.221-251
- 정용균,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에 관한 연구모형」, Manuscript,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전자무역연구센터, 2011년 1월, 6일.
- 정용균·이승석, “중재기관 평가모형을 통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특성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2010년 8월, pp.199-225.
- 이창훈·서민교, “중국비즈니스에서 판시의 역할과 시사점,”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2007년 3월, pp.235-255.
-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관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년 8월, pp.103-127.
- 최정호·이제현, “한국수출기업의 무역클레임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 논총」제15-1 집,

-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2004, pp.203-231.
-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법연구」, 한국경쟁법학회, 제18권, 2008, pp.203-243.
- 하충룡·박원형,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해석,” 「중재연구」, 한국 중재학회, 제16권 제2호, 2006년 8월, pp.121-150.
- 한스 게오르그 호아젤(배진아역),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흐름출판, 2008.
- 홍성규, “중국의 상사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2008년 9월, pp.131-153.
- Arrow, Kenneth, “The Value of and Demand for Information,” *Essays in The Theory of Risk Bearing*, North-Holland Co, 1974, pp.267-278.
- Boulding, Kenneth, *Beyond Economics: Essays on Society, Religion and Ethic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0.
- Camerer, C., G. Lowenstein and D. Prelec, “Neuroeconomics: How Neuroscience Can Inform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05, pp.9-64.
- Fei, Langfang,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A Case Study,”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 4, No. 2, 2008, pp.123-136.
- Friedman Milton,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Press, 1953, pp.3-43.
- Hempel, Carl, “Explanatory Incompleteness,” May Brodbeck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Macmillan Company, 1968, pp.398-415.
- Hofstede, Geert, *Culture's Consequences*, Sage, 1980.
- Hofstede, G(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 Jandt, Fre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s, 1995.
- Keynes, John Maynard,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Co Ltd, 1960.
- Lakatos, Imre,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John Worrall and Gregory Currie(e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8-94.
-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 Tversky, Amos and Daniel Kahneman,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Vol 185, 1974, pp.1124-1131.

Landes, David(안진환최소영역), 「국가의 부와 빈곤」, 한국경제신문사, 2010.

Peerenboom, Randall, “Seek Truth from Facts: An Empirical Study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the PRC,”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49, 2001, pp.249-327.

Rao, Sharanya, “The Cultural Vacuum in Online Dispute Resolution,” <http://www.odr.info/unforum2004>.

Reinstein, Ellen, “Finding a Happy Ending for Foreign Investors: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di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005, Vol 16, pp.37-72.

Schumpeter, Joseph, “The Commonsense of Econometrics,” *Econometrica*, January 1933, pp.5-12.

Sheehy, Benedict, “Fundamental Conflicting Views of the Rule of the Law in China and the West and Implications for Commercial Disputes,”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Vol 26, Winter 2006, pp.225-266.

Sir John Hicks, *Causality in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Wall, James and Blum, Michael, “Community Medi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5, 1991, pp.3-20.

Weber, Max “Critical Studies in the Logic of the Cultural Sciences,” Max Weber,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Free Press, 1949, pp.113-188.

Whitesell, Anne Marie, “Trend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4회 중재실무 연수과정 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3월, pp.88-98.

ABSTRACT

The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Discipline-Fusion Perspective

Yong-Kyun Chung*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wofold. The first is to investigate the main current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The second i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perspective of disciplinary fusion perspective. The main finding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inciden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creased i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during the period of 2006-2010, second, the primary causes of trade claims are disputes related with payment and those related with sales contracts, third and finally, the number of countries seeking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has increased, including European countries. In this setting,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commercial arbitration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five research methodologies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y are legal theory related methodology, institutional methodology, cultural methodology, causal methodology and empirical methodology. Traditionally, the legal profession leads the field of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ther elements to the field of commercial arbitr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disciplinary fusion approach among five research methodologies of commercial arbitration.

Key Words : Arbitration, Cohesion, Culture, Causal Method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